

김 동 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행정안전부가 7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제주도 인구 는 67만5876명이다. 이 가운데 49만 2917명이 제주시에, 18만2169명이 서 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서귀 포시 인구가 제주도 인구의 27%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귀포시는 연내 '초고령사 회'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한다.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서귀포시는 노 인인구가 3만6197명으로 전체의 19.78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 주시 14.68%, 전국평균 16.80%보다 이전해야 한다.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달라질 것인가, 그냥저냥 살 것인가

높은 만큼 간과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 다. 따라서 서귀포시청에서는 초고령사 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지원센터를 건 립하고 있으며,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확충, 통합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힘 쓴다고 한다(한라일보 '서귀포시 연내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기사 참조).

사실 인구는 도시로 쏠리게 마련인 데다 서귀포시의 전체인구가 줄어든 것도 아닌 만큼 대수롭지 않은 현상으 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균형발 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인구비중이 적은 서귀포시가 초고령사회에 임박했 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도청을 서귀포로 이전하는 것 만큼의 확실한 대책은 없다고 생각한 다. 예전에 일부 부서를 서귀포시에 뒀 던 적이 있었으나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 도지사가 근무하는 본청이 서귀 포에 있어야 한다. 도의회도 서귀포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확 신한다. 그런 정도의 대책이 없으면 백 약이 무효라고 본다.

획기적 발상 전환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제주시 동(洞)지역 고 등학교에 관한 것이다. 서쪽의 신제주 (연동, 노형) 지역에 여고가 없고, 동 쪽 지역에 남고가 적어 불편하다는 지 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해당 지 역에 학교를 신설해야 하느니 모 여고 를 이전해야 하느니 의견이 분분하다.

이 문제는 남녀공학의 확대가 확실 한 해법이라고 본다. 우선 공립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면 된다. 제주제일고 등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제주여 자상업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이다(공립인 제주제일중학교, 제주중앙중학교, 제주 중앙여자중학교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게 대세가 되면 사립 학교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학교의 전통이 소중하기에 동문 등 이 격하게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통은 새로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도 내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제주고등학 교도 남학교였지 않은가. 사관학교에서 여자생도를 받아들인 지도 꽤 오래 되 었지 않은가. 남녀공학의 긍정적인 면 이 많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부터 신 설되는 학교들은 모두 남녀공학으로 개교하지 않았던가. 요즘 세상에 남녀 칠세부동석이니 하는 말들을 내세우는 고리타분한 꼰대들은 없으리라고 본다.

달라져야 할 것은 달라져야 마땅하 다. 그러려면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급 선무다. 하지만 싫다면 어쩔 수 없다. 지금처럼 살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나 쁜 것만은 아니다. 그냥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체되는 서귀포에 대해 그냥저냥 걱정이나 하면서, 신제주에 새 학교를 세우자 말자 갑론을박도 하 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임금도 못받은 우울한 추석 결코 안된다

추석이 일주일 앞인데도 명절 분 위기란 온데간데 없다. 지역사회 가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 장기 화에다 극심한 경기침체 탓에 바 짝 움츠러든 분위기에 휩싸여 있 다. 좀 낫다는 매달 임금 생활 근 로자들의 명절나기도 올해 더 팍 팍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그 중 에도 임금 체불 근로자들은 '악 몽의 명절'을 보낼 걱정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매년 추석때면 저소득층 지원 을 통한 훈훈한 명절나기 분위기 가 지역사회에 충만해 왔다. 그런 데 올해는 그때 그때 벌어 쓰는 노동자들까지 고통을 호소할 정 도로 반대 상황이다. 임금 체불 노동자들은 벌써 명절나기에 끙 끙 앓는다. 지역사회 임금체불 사 례들이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도 가 집계한 결과 올 8월말 기준 신 고된 체불 임금만도 10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114억 원보다 8%가량 줄어든 게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 임금 체불된 사업

장과 근로자 모두 전년보다 감소 했지만 여전히 2000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못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불임금 사 업장 772곳에다 임금을 받지 못 한 근로자수가 1987명에 달한다 고 한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건설업 제조업 등 업종 전반에 임 금 체불이 이뤄지고 있다.

도가 체불임금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급공사에 대해선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활용한 명 절 이전 임금지급을 꼭 실행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역 고용노동 청의 근로개선지도 강화 등에 의 한 체불임금 해소 독려와 사업주 대상 임금채권 확보 법률서비스 제공, 상습 체불 사업장 특단 대책 등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 업주도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체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근로자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추석은 아니어도 가족・이웃간 정을 나눌 소박한 명절만큼은 맞도록 해야 한다.

열린마당

9월 재산세 관심 가져주세요



김 은 혜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9월은 토지 및 주택분(1/2)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 해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의 세 가지 과세유형이 있다.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는 법에 열거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는 모두 종합합산 대상이다. 종합합산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임야, 나대지 등 이 있으며, 구간별로 0.2%~0.5% 단계 별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 대상에 는 대표적으로 기준 이내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이 있고. 0.2~ 0.4% 단계별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 막으로 분리과세는 0.07% 저율분리 과세, 4% 고율분리과세, 0.2%의 기타 지 관심을 갖고 납기 내에 납부할 수 분리과세가 있으며, 전·답·과수워 등

의 농지에 적용되는 저율분리과세가 가장 대표적이다.

재산세(주택)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 한 재산세로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 속되는 토지를 합산해 산정된 주택공 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공 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해 재 산세액이 연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 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ARS(1899-0341) 등을 통해 가능하 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사용한 납부 도 가능하다.

또한 작년부터 재산세 분할 납부기 준이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2개 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이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시면 재 산세 부과되는 기준, 부과 방법, 편리 하고 유용한 납세 편의시책은 무엇인 있도록 당부 드린다.

뉴스-in

장성철 "허향진 직무대행 체제 수용"

○…사고당 지정에 반발했던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중앙 당의 허향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임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피력.

장 전위원장은 지난 10일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조직위원장 임 명에 대한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 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지역정 가에서 제기된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 임명에) 작동한 것 아닌지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언급.

다만 장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책임자를 누가 맡느냐가 아니 라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라며 "당의 결정을 수용해 정권 교 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 이상민기자

안전사고 없는 명절 기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추 석 명절나기를 위해 오는 15, 17일 양일간 제주민속오일시장을 비롯 동문시장, 보성시장 일원에서 안전 문화운동 캠페인이 열릴 예정.

제주시는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응을 얻고 있다"고 첨언. 백금탁기자

대선에서 정권 교체 매진 강조 재래시장에서 시장 상인과 방문객 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 문구가 인쇄된 장바구니 를 홍보물품으로 배부할 방침.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 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안전사고 없는 명절을 보내 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이윤형기자

양식장 고수온 피해 없어

○…서귀포시가 최근 한달간(7.23~ 8.26) 이어진 고수온 주의보 발령 속에서도 별다른 양식어가의 피해 가 없어 안도하는 분위기.

시는 올해 양식장 163개소에 2억 7800만원을 투입, 피해예방 물품과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를 지원 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발표.

시는 "이 사업은 올해 1월 고수 온 대응이 어려운 지하해수가 없는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 를 모집한 결과, 71개소가 사업 신 청하는 등 매년 양식어가의 큰 호

日本

30

이륜차 무법행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 대부분의 업종 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 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 린 상태다. 예외도 있다. 배달업 이다. 코로나19의 무풍지대로 호 황을 누리고 있어서다. 그런데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통법 규를 위반하는 이륜차가 눈에 띄 게 늘고 있어 우려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이륜 차 교통법규위반 적발 건수가 폭 증하고 있다. 2018년만 하더라도 도내 교통법규위반 사례는 596건 에 불과했다. 그게 2019년 1095건 에 이어 지난해는 2219건으로 크 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더 심각 하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3173건이 적발됐다. 8개월만에 전 년도 건수를 훨씬 넘어섰다. 이륜 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교통법규 위반 유형을 보 면 안전모 미착용이 1233건

(3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신호위반 607건(19%), 보도통행 366건(12%), 교차로 통행방법위 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이다. 특히 이륜차 교 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307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9건)보다 98 건이 더 늘어난 것이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지난해 9명에서 4명으 로 줄었다.

도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실제 이륜차의 무법행위가 심심찮게 목격된다.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 면서 교통신호를 밥먹듯 무시하 거나 교차로를 가로지르기 일쑤 다. 물론 배달업 종사자들의 사정 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겐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 이다. 그렇다고 이륜차의 교통법 규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교통법규 위반이 자칫 더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 큼 더 이상의 무법행위는 안된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순애(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 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 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 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남 편 김태종 아 들 김형희 며느리 고지연 김영자 사 위 강봉오 복자 이용남 순보 김경륜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창녕성씨 재천(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 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 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 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며느리 김길심 아 들 오상도 강경자 딸 **오명자** 사 위 최홍도 오명순 김창진 오명희 김용국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흥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 -5552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바랍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귤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귤 4, 8년생 ·천혜향 ·궁천 1, 4년생 3, 5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 궁천 변이지(오하라베니) 2, 3년생 ·레몬 ·하례조생 3년생 3년생 ·황금향 ·고림조생 5년생 1, 2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욕묘 35년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010-2699-235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부씨 인자(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 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 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 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9월 13일

아 들 정중영 며느리 김영분 길 영 이승아 정윤순 사 위 박영호 윤정 장영후 윤옥 상정곤 윤숙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인탁(국가유공 자, 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장, 좌정승공파 종친 회장, 향년 9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 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 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9월 13일 아 들 김승빈 며느리 **조희정** 이진아 김승범 김춘림 사 위 선림 현숙

복숙

희숙

김홍식 장원석 김성찬

型 겜 Oŀ 방수전문건설업 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